

대안학교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 실태 조사

김영주 · 차정호* · 정철 · 이정호

대구대학교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Ecocentric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n Alternative Schools

Youngjoo Kim · Jeongho Cha* · Cheol Cheong · Jung Ho Lee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of ecocentric environmental education in alternative schools. We analyzed the aims, curriculum, environmental activities of 42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from their homepages and guidebooks. For more information, additional interviews with teachers were also conducted. As a results, the ratio of schools aiming ecologism were relatively low, however, 36 (85.7%) of 42 alternative schools included ecologism in their educational goals directly or indirectly. 39 schools included an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ir curriculum, and 3 environmental class was opened in a week on the average. The most frequently used environmental activity in alternative schools was “recycling of solid wastes”, and then “reducing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using environment-friendly, and recycled products” were followed. “Using water-purifier tank” and "using alternative energy" were also practice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ecologism, environmental education, alternative school, environmental activity, environmental curriculum

I. 서 론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지구 환경문제는 기존의 제도나 틀로는 해결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생태학적 위기로 표현되는 현재의 위기 상황은 바로 인간의 위기이기도 하다(조용개, 2001). 우리나라는 지금껏 기계적 과학론이라는 패러다임의 지배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권소희, 2008).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 세우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유성, 1994; 조용개, 2001).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문명이 자연환경에 끼친 피해를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인간중심적인 입장으로, 환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인류가 처한 환경문제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생태주의(ecologism)적인 시각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는 부족하며,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양창삼, 1994). 현재의 생태위기는 개발에 의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인간의 잘못된 적응 행동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Maloney & Ward, 1973).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간중심 윤리와 세계관으로는 불충분하며,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조용개, 2001). 그동안 환경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환경주의적 해결 방안보다는 생태주의적 해결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적인 태도,

*교신저자: 차정호(chajh@daegu.ac.kr)

**2010년 10월 29일 접수, 2010년 12월 29일 수정원고 접수, 2010년 12월 30일 채택

실천 의지를 가르치는 환경교육은 기본적으로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김희영, 2010). 환경을 하나의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로 보고(최석진, 2001), 생태적인 환경과의 접촉을 통한 친환경적 감수성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남상준, 1995). 따라서 환경교육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나 태도의 함양이 중요하며(장미정, 1999), 최종적으로는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김희영, 2010). 그러나, 환경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실태는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환경 교과가 제 6차 교육과정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독립 교과로 채택된 지 20년이다 되어감에도 우리의 환경교육은 여전히 지식, 가치, 태도, 실천을 추구하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김희영, 2010).

이러한 점에서 대안교육이 가지는 실천적 성격은 학교 환경교육에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 대안학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노작교육(이병환, 2007)은 대안교육의 실천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며, 또한 대안학교의 공동 이념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김영순, 이병환, 2008)는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생태주의적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이처럼 대안학교들은 생태주의를 직접 강조하지 않더라도 본질상 생태주의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다(이종태, 2007). 즉,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친생태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희영, 2010).

지금까지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교육 하에서 환경 교과의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예를 들면, 최석진 등, 1997), 대안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지역의 한 학교에 대한 사례연구(김희영, 2010)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공교육의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학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안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 교육과정을 생태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안교육 소식지인 '민들레'에 등록된 대안학교를 조사하여 총 42개교(2007년 7월 기준)을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부록 1). 각 학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 학교들의 소재지는 경기지역이 14개교, 서울이 10개교로 가장 많고, 그 외의 시도에는 1-3개교씩 분포해 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8개교였다.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교급이 통합되어 운영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곳은 2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곳은 4개교였고, 초·중·고가 모두 통합되어 운영되는 학교는 4개교였다. 대안학교의 소재지는 농촌지역(16개교)보다는 도시지역(26개교)이 더 많았고, 주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많았으며, 정부의 설립 운영을 인가받은 학교는 42개교 중 6개교로써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표 1 연구 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학교 수	%
학교 급	초등학교	16	38.1
	중학교	8	19.0
	고등학교	8	19.0
	초·중 통합	2	4.8
	초·중·고 통합	4	9.5
	중·고 통합	4	9.5
소재지	도시 지역(시·구·동)	26	61.9
	농촌 지역(군·면·읍)	16	38.1
설립 연도	2000년 이전	5	11.9
	2001년-2005년	28	66.7
	2006년 이후	9	21.4
인가 여부	인가	6	14.3
	미인가	36	85.7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전국 42개 대안학교의 환경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각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내용을 수집하고, 각 학교의 홍보용 책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학교 관련 연수에 참가한 대안학교 교사들과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우선 학교의 홈페이지 내용과 홍보

책자를 통해 각 학교의 연간 교육 계획서 및 교과 운영 계획을 통하여 환경 관련 교과 편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안학교 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교과의 수업 시수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 중인 생태주의 환경 활동을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표 2>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각 학교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환경교육과정 운영 분석틀은 선행 연구(이종태, 2001)를 기초로 대안학교 홈페이지, 학교 홍보 자료 분석, 교사 면담 자료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성, 생태주의 이념, 환경 관련 교과 편성 여부, 환경 관련 교과의 수업 시수, 실천 중인 환경 활동 등 5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틀의 개발은 환경교육 전문가 2명(교수, 교사), 과학교육 전문가 1명(교수)의 자문을 얻어 개발하였다.

표 2 대안학교의 환경교육과정 운영 분석틀

분석 항목	분석 내용
목표 지향성	자유학교형 생태학교형 재적응학교형 고유이념추구형
생태중심주의 교육 이념	명시적 포함 간접적 포함 관련 없음
환경 관련 교과 편성 여부	환경 관련 교과 있음 환경 관련 교과 없음
환경 관련 교과의 수업 시수	한 달에 2시간 내외 일주일에 1-2시간 일주일에 3-4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실천 중인 환경 활동	쓰레기 분리 수거 자체 정화조 시설 대체 에너지 사용 친환경, 재활용 물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생태중심주의 교육 지향

대안학교의 목표 지향에 대하여 핵심 특징을 기준(이종태, 2001)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42개 학교 중 '자유학교형' 이 14개교(33.3%)로 가장 많았고, '고유이념학교형' 이 13개교(31.0%)로 그

다음이었다. 생태중심주의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생태학교형' 학교는 8개교(19.0%)였으며 '재적응학교형' 이 가장 적은 7개교(16.7%)였다.

각 학교의 교육 이념에 생태중심주의 관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목표 지향에 따른 분류에서 '생태학교형' 에 해당하는 학교는 8개교였지만, 생태중심주의가 교육이념에 명시된 학교는 26개교(61.9%)였고, 교육 이념에 '생태' 라는 단어와 함께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문장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학교는 10개교(23.8%)였다. 반면, 생태중심주의가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6개교(14.3%)였는데, 대안학교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생태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김희영, 2010)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철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 내용이나 과정에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대안학교의 목표 지향과 생태주의 교육철학

항목	구분	학교 수	%
목표 지향성	자유학교형	14	33.3
	생태학교형	8	19.0
	재적응학교형	7	16.7
	고유이념학교형	13	31.0
생태주의 교육 이념	설립이념에 명시	26	61.9
	간접적으로 포함	10	23.8
	관련 없음	6	14.3

2. 환경 관련 교과 편성과 수업 시수

대안학교의 환경교육 실태를 환경 관련 교과 편성 여부와 수업 시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편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2개 학교 중 3개교를 제외한 39개교에서 환경 관련 교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작물을 직접 기르는 농사 수업으로 텃밭 가꾸기, 어린이 농장, 생태 농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프로젝트의 주제로는 물이랑 흙이랑 나무랑, 흙살림, 반갑다 친구야 등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을 하거나 주제별 수업 중의 주제로는 생태나들이, 사람과 자연, 식물학, 동물학 등으로 구성하는 등 학교별로 운영의 형식과 방법은 다양하였다.

대안학교의 목표 지향성에 따라 환경 관련 교과의 편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생태학교

형'과 '고유이념학교형'의 학교는 모두 환경 관련 교과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자유학교형' 1개교, '재적응형' 2개교에서는 환경 관련 교과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대안학교와 일반학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일반학교에서 중학교 "환경"이나 고등학교의 "생태와 환경"¹⁾을 채택하는 비율이 20% 이내였던 결과(이광호, 최석진, 2000)를 고려한다면, 대안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의 편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태중심주의가 대안학교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 대안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유무

목표 지향성	환경 관련 교과 편성	
	편성 학교 수	미편성 학교 수
자유학교형	13	1
생태학교형	8	0
재적응학교형	5	2
고유이념학교형	13	0
계	39	3

환경 관련 교과가 편성된 학교들의 수업 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대안학교의 환경 교과는 일주일에 3~4시간인 경우가 16개교(38.1%)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에 1~2시간 운영하는 학교가 9개교(21.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도 8개교(19.3%)나 되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경우는 텃밭 가꾸기나 농사 수업 등에 내용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작작업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2시간 내외로 운영하는 학교는 6개교(14.2%)였는데, 이 경우는 주로 주제 수업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볼 때 대안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초등학교 과학수업에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교육 가능 시간(박순호, 윤성자, 2005)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높은 것으로 대안학교에서의 환경 교육의 비중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대안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수업시수

항목 구분	학교 수	%
한 달 2시간 내외	6	14.2
일주일 1~2시간	9	21.3
일주일 3~4시간	16	38.1
일주일에 5시간 이상	8	19.3
미편성	3	7.1
합계	42	100.0

3. 학교에서 실천 중인 환경 활동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태주의 환경 활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재활용 물품 사용하기, 자체 정화조 시설 사용하기, 대체 에너지 사용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실천 활동을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평균적으로는 학교당 2.5개의 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경북 영천시 산자연학교와 인천 강화군의 산마을고등학교, 그리고 충북 제천시의 간디학교에서는 5가지 환경 활동 모두를 실천하고 있었다.

표 6 대안학교에서 실천하는 환경 활동 (N=42)

구분	학교 수	%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42	100.0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26	61.9
친환경·재활용 물품 사용하기	19	42.9
자체 정화조 시설 사용하기	9	21.4
대체 에너지 사용하기	7	16.7
합계	100	

¹⁾중복 응답 포함

여러 환경 활동 중 가장 많이 실천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재활용 물품 사용하기'였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하기'는 전체 연구 대상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많은 학교에서는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함을 접근성 있는 곳에 배치하였고, 분리수거 항목을 세분화하여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거한 물품들

1) 2010년 현재, 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환경' 교과를, 고등학교 2, 3학년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태와환경' 교과를 운영 중임. 고등학교 1학년은 2011년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환경과녹색성장' 교과를 운영함.

을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먹을 만큼 직접 배식하고,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을 하는 곳이 많았으며, 남은 음식물은 가축 먹이로 주거나 지렁이 화분을 이용하는 등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24개교(50.0%)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을 생활화하고, 폐현수막이나 못 입는 천 등을 재활용하여 에코백을 만들어 주변에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 곳이 많았다. ‘친환경·재활용 물품 사용하기’는 18개교(42.9%)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비누, 세제, 치약 등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설거지에 쌀뜨물을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만든 화장지나, 사용 후 고지로 만든 복사용지 등의 재활용지 사용이 많았고, 어떤 곳은 달력 뒷면, 사료포대 속지를 전지로 재사용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상의 활동들은 굳이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안학교에서는 이 활동들을 환경교육과 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도록 돕는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체 정화조 시설을 활용하거나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적지 않은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자체 정화조 시설 사용하기’는 9개교(21.4%)에서 운영되었는데,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여 분뇨에 톱밥이나 쌀겨 등을 뿌려 자체 발효시킴으로써 거름으로 재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경북 영천시 소재 산자연학교에서는 박테리아를 통해 화장실 오폐수를 처리하고 미네랄이 높은 물을 만들어 내는 정수 처리 시스템(전선미, 전경희, 김미경, 2000)도 갖추고 있었다. 한편, 자체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학교의 오폐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하여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은 여러 곳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체에너지 사용하기’는 7개교(16.7%)에서 실천하였다. 대체에너지 중에는 태양광발전이 가장 많았고, 풍력 발전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지열발전을 이용해 기숙사 난방에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풍력발전기를 직접 만들어 설치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인간 동력을 이용한 자전거발전기를 사용하고, 태양광조리기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밥 짓기 등이 있었다. 그러

나 정화조 시설이나 태양광 에너지, 풍력발전, 지열발전 등의 대체에너지 활용은 학교 차원에서 시설설비에 투자가 필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약에 비추어볼 때 일반학교 보다는 대안학교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환경교육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 목표 지향, 환경 관련 교과 편성·운영, 실천 중인 환경 활동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각 학교의 목표 지향성을 분석한 결과 ‘생태학교형’이나 ‘재적응학교형’ 보다는 ‘자유학교형’과 ‘고유이념학교형’이 많았다. 즉, 학교의 지향성만 살펴본다면 생태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학교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각 학교의 설립 이념을 분석한 결과 생태중심주의 교육이념이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학교는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환경 관련 교과를 편성하였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별로 실천 중인 환경 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로 실천되고 있는 활동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기’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재활용 물품 사용하기’ 등이었다. 이외에도 자체 정화조 시설을 활용한다거나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교육 이념이나 실제 환경 관련 교과의 운영, 그리고 실천하는 환경 활동 등은 대안학교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생태중심주의를 표방한다는 선행 연구(김희영, 2010)의 주장이 잘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 운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안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는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시간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환경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현실의 제약으로 인하여 잘 살리지 못하는 일반학교에 비하여 대안학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생태중심주의적인 환경교육을 비교적 잘 실천할 수 있

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역사가 짧고, 대안학교에 적합한 환경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단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을 가르치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실천상의 애로점들을 파악하여 생태중심주의라는 환경교육의 방향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권소희(2008). 생태주의적 환경철학관에 의한 미술교육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순, 이병환(2008).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 학지사.

김희영(2010). 대안학교의 친환경적 교육요소와 대안 학교 중학생의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감수성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상준(1995). 환경교육론. 대학사.

박순호, 윤성자(2005). 우리나라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247-262

양창삼(1994).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15(2), 121-149.

이광호, 최석진(2000). 우리나라 중·고교 환경 교육의 실태, 환경교육학회지, 13(1), 37-43

이병환(2007). 대안학교 관련 쟁점 분석: 관련 법령에 대한 대안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연구, 25(4), 535-563.

이종태(2001).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서울:민들레

이종태(2007). 대안교육 이해하기. 서울:민들레

장미정(1999).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물·대기분야의 표준화 모형으로서의 모듈개발 및 평가.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유성(1994). 생태주의 환경교육과 교육개혁. 환경과 생명. 212-219.

전선미, 전경희, 김미경(2006). EDTA 대체용 천연 킬레이팅제를 함유한 발효 축산폐수의 배지조성

를에 따른 *Chlorella ovalis*와 *Dunaliella parva*의 생산성 강화. *Algae*, 21(3), 333-341.

조용개(2001). 생태중심 생명가치관 확립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14(1), 1-18.

최석진(2001). 환경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연구·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1.

최석진, 김정호, 이동엽, 장혜정(1997).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 실태조사연구, 환경교육학회.

Maloney, M. & Ward, M. (1973). Ecology: Let's hear from the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28(7), 583-586.

국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의 생태중심주의적인 환경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국 42개 대안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 안내책자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환경 활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학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42개 대안학교 중 36개교(85.7%)의 교육 목표에 생태주의를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39개교에서 환경 관련 교과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 과목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3시간씩 운영되었다. 대안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환경 활동은 분리수거였고, 다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친환경 및 재활용 용품 사용하기였다. 자체 정화조 사용하기와 대체 에너지 사용하기도 환경 활동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생태주의, 환경교육, 대안학교, 환경 활동, 환경교육과정

부록 1. 연구대상 대안학교 목록(소재지 순)

1. 참꽃작은학교(강원 원주시)
2. 전인자람학교(강원 춘천시)
3. 고양자유학교(경기 고양시)
4. 구름산학교(경기 광명시)
5. 맑은샘학교(경기 과천시)
6. 무지개학교(경기 과천시)
7. 산어린이학교(경기 부천시)
8. 열음학교(경기 부천시)
9. 칠보산자유학교(경기 수원시)
10. 버리학교(경기 안양시)
11. 온뜻학교(경기 의왕시)
12. 꿈틀자유학교(경기 의정부시)
13. 행복한 과정(경기 파주시)
14. 어린이학교(경기 포천시)
15. 꽃피는학교(경기 하남시)
16. 푸른숲학교(경기 하남시)
17. 간디고등학교(경남 산청군)
18. 간디자유학교(경남 산청군)
19. 민들레학교(경남 산청군)
20. 원경고등학교(경남 합천시)
21. 나무와학교(경북 영천시)
22. 산자연학교(경북 영천시)
23. 아시아 공동체(부산 남구)
24. 난나공연예술학교(서울 강북구)
25. 삼각산재미난학교(서울 강북구)
26. 꿈꾸는 아이들 학교(서울 관악구)
27. 꿈타래(서울 관악구)
28. 나란타대안학교(서울 광진구)
29. 공간 민들레사랑방(서울 마포구)
30. 성미산학교(서울 마포구)
31. 스스로넷 미디어 스쿨(서울 용산구)
32. 씨앗학교(서울 은평구)
33. 꿈틀학교(서울 종로구)
34. 영남전인학교(울산 울주군)
35. 산마을고등학교(인천 강화군)
36. 곡성평화학교(전남 곡성군)
37. 빛고을학교(전남 회순군)
38. 영산성지고등학교(전남 영광군)
39. 실상사 작은학교(전북 남원시)
40. 꽃피는학교(충남 공주시)
41. 자유학교 물꼬(충북 영동군)
42. 간디학교(충북 제천시)